

외국인의 중국 주식 거래방법과 주의사항은?



중국 주식시장은 상해 A, B주와 심천 A, B주로 나뉘는데, A주는 일반 외국인의 거래가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의 경우 B주만을 거래할 수 있다. 또한 홍콩에 상장한 중국 국유기업 주식을 H주라고 하는데, 홍콩에 실질적인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외국인도 거래가 가능하다¹⁾.

1. 중국주식 계좌개설

중국현지에서 외국인은 여권만 있으면 중국 증권회사를 통해서 B주거래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각 지역의 증권회사에 방문해서 여권을 제시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설 비용²⁾을 내면 증권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증권회사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한후 인근 중국은행(B주 거래 시 심천시장은 홍콩달러, 상해시장은 미달러로 환전하여 거래)에 가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권회사에서 받은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개설이 마무리 된다. 만일 증권회사에 거래대금을 입금하려면 중국은행(대표적인 중국의 외환은행)에서 해당통화를 환전하여 입금 후 증권회사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이체방법은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증권계좌 개설 시 받는 안내문을 참고해야 된다.

중국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한국 국내 증권회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 관리를 위한 주식 계좌와 자금 관리를 위한 자금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증권회사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먼저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중국 증권회사에서 개설하는 자금계좌는 먼저 일반은행에 개설해 놓은 은행 외환계좌와 연계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약간의 계좌개설비가 필요하며, 반드시 주식거래 시간대에 가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1) 상해, 심천, 홍콩 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은 각 거래소마다 별도로 거래를 함. 따라서 동일한 기업의 주식일지라도 이 3개 시장에 상장한 주식을 거래하려면 각각의 주식계좌를 개설해야 함

2) 상해 B주 시장은 미화 19달러, 심천 B주 시장은 120홍콩달러, 상해 A주 개설은 40위안, 심천 A주 개설은 50위안임(참조 부록)

외국인의 중국 주식 거래방법과 주의사항은?



중국에서 계좌개설 절차:

1. 우선은 가까운 증권회사에 가서 문의하면 해당 증권사와 거래하는 은행의 송금계좌를 알려줌. 제시해주는 은행에 가서 은행계좌를 개설.
2. 주주계좌 개설시 상해, 심천, 홍콩 거래소에 거래가 가능 하도록 각각 개설함. (즉 신청서 두 장 - 심천 B주, 상해 B주 - 작성, 지점에서 동시 개설 가능.)
☞ 계좌개설이 완료되면 주주계좌번호(資金帳號)가 기입된 용지와 카드를 교부 받음.
3. 주주 계좌를 개설하면서 해당 증권사에서 지정해준 외환자금계좌(상해시장의 경우 미국 달러계좌, 심천시장의 경우에는 홍콩달러계좌)로 해당은행을 방문하여 자금이체를 연결
4. 송금계좌 번호를 가지고 은행에서 외환통장을 개설한 다음 증권회사에서 알려준 계좌로 송금
☞ 최저 입금요구: 상해 시장 1,000\$; 심천시장 7,800 HK\$
5. 송금영수증을 가지고 증권회사로 가서 계약서를 체결
6. 계약서 체결 후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받은 후 증권회사 홈페이지에서 HTS를 다운 받고 거래를 시작.

중국 현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매입대금까지 외환계좌에 예치되어 있다면 이제부터 중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중국에서 계좌개설 후 한국 내에서 직접 홈트레이딩(HTS, 개설시 체크필요)도 가능하다. 계좌를 개설한 중국 증권사를 통해 가능하며 조작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으나 중문으로 되어있어 다소 적응기간이 필요하다³⁾. 특히 증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믿을 수 있는 증권사를 선택한 후 여러 측면에서 서비스가 가능한지도 살펴 보아야 한다. HTS를 할 경우 증권회사에서 받은 CD나 증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홈트레이딩 접속은 계좌개설시 기재한 거래번호를 이용하는데, 자세한 이용방법은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도움말을 참고하면 된다.

홍콩계좌개설도 중국 본토에서 가능하지만⁴⁾ 홍콩계좌는 주소 확인 및 주소지 서류송부 등 몇 가지 외국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필요하다. 중국당국은 외화유출방지 목적에서 중국 현지인의 홍콩주식거래를 금지하며, 외국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2. B주식 증권거래 대금 입출금 방법

외국인인 경우, 주식 투자자금 입금 방법은 현재 세가지가 있다. 첫째, 외국에서 직접 증권사 영업지점의 지정계좌로 송금하여 입금하는 방법; 둘째, 외국에서 중국 내 은행으로 송금한 자금을 증권사

3) 중국 온라인 트레이딩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해당 컴퓨터에 중국어 폰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XP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음

4) 중국 본토에 들어간 홍콩중개회사를 통해 개설가능하고, 중국 본토 중개회사는 직접적으로 H주를 개설할 수 없고 다만 대리업무만 할 수 있음



지정 계정으로 입금하는 방법; 셋째, 외국에서 가져온 여행자 수표로 직접 은행에서 증권사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이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 송금 뒤 본인이 직접 증권 영업 지점에 가서 계좌개설 신청을 해야 한다. B주식 거래대금은 반드시 외화로 입금되어야 하지만, 만약 중국 내에서 수익으로 발생한 외화 현금 일 경우 납세 후 은행에서 외국으로 송금이 가능한 외환으로 환전해야 증권사 거래대금으로 입금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외화 현금은 증권사 자금 계좌로 직접 입금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 내 은행과 증권사 간에 자금 반입·반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은행과 증권사간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 외국에서 직접 증권사로 송금하여 온 자금을 다시 본국으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증권사에서 직접 자금 반출 신청을 해야 한다.

中현지 외환계좌에서 입출금할 때 주의할 점?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국에서 증권회사에서 지정한 중국 은행에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을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여행자 수표로 가지고 가야 한다.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입금할 경우 한국에서 가져갔다는 증명이 안되므로 차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 즉 중국은행에 미국달러나 홍콩달러 등 외국환을 현금으로 가지고 갔을 경우 입금은 가능하지만, 이 외국환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출하여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기 힘들다.

또한 중국은행에 달러 환전입금액은 1일 4000달러로 제한되어 있다. 즉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예금 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4000 달러 이하이다(외국인 개인기준). 그리고 입금 후 6개월이 지나면 은행에서 다시 달러로 환전이 어렵다.

3. 외국인으로서 중국 A주를 직접 거래하는 방법

현재 A증시는 개방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WTO가입에 따른 요구사항에 의해 향후 중국 자본 시장은 완전히 개방될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 외국인이 A주에 투자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을 얻은 85개 해외기관 투자자들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A주 시장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런 QFII나 혹은 자국의 QFII와 제휴를 맺은 투자사를 통해 A주 시장에 투자가 가능하다.

(2) 한국의 경우 KODEX CHINA H ETF가 상장되었는데, 중국 주식에 투자하려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 상품은 중국 홍콩 H지수에 연동되고 있는 지수 관련 상품이다.

(3) 중국 경내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기업들은 법인 명의로 투자가 가능하다. 한국인이 투자한 합자회사 또는 독자기업도 가능하다.

(4) 이외에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내국인 법인회사를 통하거나, 잘 알고 있는 중국인의 명의를 빌어 A주 주식계좌를 개설해 직접 투자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불법이다. 이는 증권 계좌 개

외국인의 중국 주식 거래방법과 주의사항은?

설 시 증권사가 주주계좌와 자금 계좌 명의인을 달리 기입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인 사이에서도 많이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분쟁발생 소지에 대해서는 자금계좌 명의인이 해당 증권계좌의 소유주라는 최근 판례는 있으나,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인의 신분을 빌어 A주 주식계좌를 개설할 경우의 위험성

중국 <<증권법>> 제80조, 166조, 208조와 <<중국증권등기결산유한책임공사증권등록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는 반드시 본인이름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증권거래를 해야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많은 외국 투자자들은 아직 관련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중국인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당하고 있다.

차명계좌로 거래를 할 경우에 아래와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 1) 차명계좌로 거래를 했을 때, 명의 양도자가 개인채무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범죄와 관련된 사람의 경우에는 경매 처분되거나 압수될 수 있다.
- 2) 명의 양도자는 은행대출자금이나 이자를 갚기 위해 차명계좌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 3)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조건에 부합되며 확실하게 차명계좌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련 자산을 몰수할 수 있지만, 기관이 개인명의로 혹은 개인이 기관명의로 계좌를 개설했을 경우는 자산몰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위탁회사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질 것이며, 투자자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위험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차명계좌로 거래를 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 (2005년)

제 80조 법인이 불법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법인이 본인(회사) 혹은 타인의 증권계좌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66조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증권거래를 위탁할 경우, 반드시 증권계좌를 신청해야 한다. 증권등기결산기관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자 본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줘야 한다.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할 경우, 반드시 중국 주민등록증(身分證) 혹은 중국 법인자격의 합법적 증명서를 보유해야 하며 국가에서 규정한 예외는 제외한다.

제208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이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증권을 매매한 경우, 개정 명령을 내리고 그 위법 소득을 몰수하여, 그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3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 인원들에게 경고를 주며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증권회사가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본인(회사) 혹은 타인의 증권계좌를 대여하는 경우, 위 규정에 외에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 인원들의 재직자격 혹은 증권 종사자격을 취소한다.

중국 증권등기결산유한책임공사 증권등기 규칙 (中國證券登記決算有限責任公司證券登記規則)

제5조 증권은 반드시 소지인 본인 명의로 보유해야 하며, 본 회사에서 제공하는 증권등기 기록은 증권소지인이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합법적인 증명이다.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 증권법 규정에 따라 증권은 명의소지인에게로 기재할 수 있다. 명의소지인은 합법적으로 증권소지인의 권리를 가질 수 있음과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증권소지인은 명의소지인을 통해 상응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명의소지인이 증권소지인 대신 상응한 권리를 이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증권소지인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증권소지인의 의견에 따라 처리를 하고 증권소지인의 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본 중국증권등기결산유한책임공사는 명의소지인에게 증권소지인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명의소지인은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명의소지인이 제공하는 증권등기기록은 증권소지인이 증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합법적인 증명이다.



4. 중국 현지 계좌 개설 장점

한국 내에서도 B주 거래는 한국의 허가 받은 증권사를 통해서 가능하지만⁵⁾ 수수료 및 환율변동에서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중국 현지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했을 경우의 가장 큰 이점은 한국이나 외국의 증권계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매매체결과 매도차익 등에 대한 부과세금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계좌 개설을 하는 이유? ➡ 수수료 부담이 적고 세금이 없다.

중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면 중국 현지 증권회사에 자신의 거래계좌를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한국 내에서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가 외국의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중국 내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에 따른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 내에서는 거래 수수료가 약 1% 내외지만 중국 내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거래규모에 따라 증권사 수수료 0.3~0.1%와 인지세 0.1%만 내면 된다. 중국의 경우 현금배당과 무상증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현지에서 부과된다.

Panel A: 중국주식 주문 방법

시장분류	중국 경내에서 계좌개설 한 경우		한국에서 계좌개설 한 경우	
	B주식	홍콩주식	B주식	홍콩주식
계좌개설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온라인거래	가능	가능	불가	불가
전화주문	가능	가능	가능	가능
현장거래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브로커	특수고객	가능	불가	불가

Panel B: 중국에서 직접 계좌개설 시 증권거래 수수료 기준 (온라인 거래 기준, %)

	인지세	거래수수료 (중간기준)	기타 세부	합계 (중간기준)
A주식	0.10	0.20	무	0.30
B주식	0.10	0.20	무	0.30
홍콩주식	0.10	0.20	무	0.30

주: 중간 기준이란 거래 총액 수수료는 최저 0.1%이며 최고 0.3% 인데 통상적으로 대형 고객은 0.1% 일반고객은 0.25% 내외이기에 따라서 중간 기준을 0.20%로 책정함

연구위원 안유화

5) 중국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계좌 신청을 의뢰하면 외국인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해 중국 계좌를 만들 수 있음

외국인의 중국 주식 거래방법과 주의사항은?



본 "Q&A"섹션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습니다. 중국 자본시장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월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질문 중 당 월 주제와 가장 가까운 질문 하나를 선택하여 객관적이고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작성해 드리 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은 이메일로만 받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연구위원 안유화 yuhuaan@kcmi.re.kr

※저작권자 © 자본시장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